



### 취임 100일... 흥기삼 동국대 총장에게 듣는다

## “개교 100주년, ‘제 2창학’ 계기 만들 것”

동국대 흥기삼 총장은 17일 취임 100일(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산 불교병원 개원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불교생태 특성화대학 모델, 부대사업 창출방안, 건학이념 구현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흥기삼 총장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불교생태연구 기반이 확립되고 있다”며 “8월 12일 2006년 동국대 개교 100주년기념사업단을 구성하고, D-1000일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 벌써 취임 100일 지났다. 그간의 활동은.
  - 전국에 퍼져있는 대학기관을 방문해 업무를 파악하면서 동국대학이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고민속에서 지냈다.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학은 앞으로 이상추구 성향인 강한 목업의 상아탑과 미국의 사회봉사 개념을 융합한 대학모델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이번 기반에서 2006년 개교 100주년, 불교생태 특성화대학, 학내교육 내실화, 사업창출방안 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전념했다.
  - ▲ 불교병원 개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 빠른편 2004년 가을 늦어도 2005년 봄으로 개원

일정을 맞추고 있다. 되도록이면 불교병원을 빨리 개원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만 부채 500억원까지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불교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이 필요하다. 가용재원은 건축기금 20억, 발전기금 50억, 불교병원기금 60억원뿐이다. 학교에서는 자금조성을 위해 1500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의 활용방안 마련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중이다. 특히 동대 한방병원의 우왕청심환과 편자환을 직접 제조하는 제약회사와 약조를 재배하여 가공 및 공급하는 식품회사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불교병원이 개원하기 위해서는 교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불교병원이 하루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병원 개원 자금위해 제약회사 설립 검토

- ▲ 불교병원을 앞당겨 개원할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
  - 불교병원의 무리한 개원은 학교의 교육환경 및 연구의 부실, 기존 의료원의 장비 미 교체로 인한 총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상황에서 빠른 개원보다는 정확한 컨설팅을 통한 세밀한 컨셉을 가지고 병원의 이익 창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2006년 5월 8일은 동국대가 제 2의 창학을 하는 날

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국대 개교 100주년 D-1000일 행사를 8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도약이념 제, 100주년 기념사업단 발대식, 천인천배천등기원제, 1천명 테일캠프, 문헌연예인 총출동 ‘다시 태어나는 동국’ 콘서트, 남산일대 연동행렬이 예정돼 있다.

- ▲ 취임당시 발표한 불교생태학 연구를 통한 건학이념 구현방안은 어떻게 되가는지.
  - 최근 세미나와 관련교수 연구모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불교생태학의 가능성은 확실하다는 결론이다. 이제 불교생태학을 중심으로 동국대 전 학과가 협력, 불교생태학에 기반하여 부처님의 법을 온 인류에게 분명히 전달 할 수 있는 건학이념 구현의 확적체계를 세우고 있는 단계이다. 최근 교육부에 불교생태학에 기반한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을 신청했다.
  - ▲ 교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동국대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취임이후부터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건학이념의 구현도 결국은 교학을 발전시키고, 불교계에서 활동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가장 큰 역할인 교육과 연구공토 조성이 중요하다. 최근 전체교수모임에서 최대한 수업에 충실하고, 시간을 내더라도 학생들 개별 지도까지 하기로 했다. 불자들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서 학교발전을 위한 조건과 도움을 주기 바란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여름방학과 휴가를 앞두고 50여 사람과 단체에서 150여 차례의 다양한 여름수련회가 준비돼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여름수련회를 진행한 100여회 보다 50%나 증가했다. 수련회의 특징은 예불, 참선수행, 목경, 108배, 발우공양 등 수행위주의 예년 프로그램과는 온 가족이 참여해 차를 마시거나 산사를 돌아볼 수 있는 사찰체험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위빠사나와 명상 등 수행교육, 삶을 돌아보고 참회할 자기성찰 등의 기회가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사찰체험 프로그램이

## 올 여름방학·휴가 절에서 보내세요

50여 사람·단체 수련회 ‘손짓’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실시된 템플스테이와 주말수련회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8월 21일부터 11일간 열릴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한 템플스테이도 독특한 한 뭉치를 담당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18일 신행정보센터(info.buddhism.org)를 개통, 여름수련회와 사찰에서 이뤄지는 각종 신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6월 20일 현재 발표된 사찰의 수련회 일정이다. 박봉원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찰	대상	행사명	일정(회수)	문의	사찰	대상	행사명	일정(회수)	문의
금강선원	일반	참선수련회	7.19-8.7(3회)	(02)445-8484	선덕사	어린이·일반	자기성장 수행학교	7.23-8.14(2회)	(062)263-4660
마하선원	초고생	여름불교학교	7.19-22	(02)952-0666	회양사	일반	선수련회	7.22-8.15(4회)	(061)783-0038
갈상사	초·중·고·일반	선수련회	7.24-8.14(4회)	(02)741-4696	미원사	어린이·중학생	한문학당	7.27-8.19(3회)	(061)533-3521
살보사	중고생·일반	간간수련회	7.25-8.3	(02)352-3262	백양사	초·중고생·일반	여름수련회	7.18-8.13(6회)	(061)755-0107
불광사	중고·20-40세 미혼	햇물장전대회	7.5-8.11(2회)	(02)413-6060	나은 누구인가	일반	나는 누구인가	7.21-8.15(4회)	(061)392-0434
능인선원	대학생·가족·일반	참나를 찾아가는 산사체험	7.17-8.17(4회)	(019)295-3840	관음대왕회	일반	관음대왕회	7.13-8.28(7회)	(061)337-3440
진관사	초고생	여름불교학교	7.19-21	(02)359-8410	한곡선 요가	일반	매주 토요일	(061)835-9594	
법장사	어린이·청소년	여름불교캠프	7.20-28(2회)	(02)971-0203	송림암	일반	참나를 찾아 떠나는 참선여행	7.29-8.1	(061)843-8488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학생	한국불교1600년대회	7.31-8.3	(02)732-0239	대흥사	초·중고·일반	솔솔마을 참선수련	7.15-8.8(5회)	(061)534-8877
지장사	어린이·초중고생	단기출가·한문서당	7.30-8.4(2회)	(02)856-1558	금산사	초·중고·일반	여름수련회	7.20-8.17(4회)	(063)858-4440
파라미타정소년협	청소년·학부모	문화재 모니터링, 생태기행	7.1-8.31(4회)	(02)723-6165	범어사	초·일반	여름수련회	7.17-8.7(3회)	(051)508-3122
봉은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5-27	(02)3218-4815	경계사	일반	여름수련회	7.24-8.1(2회)	(055)883-1901
웅주사	어린이·청소년·일반	효행 참선수련회	7.21-8.1(3회)	(031)234-0040	해인사	청소년·일반	아름다운 인연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7.1-8.16(7회)	(055)932-7430
보선사	초·중고생·일반	신행출가, 숲속학교	7.19-8.11(3회)	(031)527-5974	통도사	초·중고·일반	천년고찰에서 참나를 찾아서	7.13-8.9(6회)	(055)382-7182
대원정사	가족	여름수련회	7.24-27	(031)855-5503	서원사	일반	여름수련회	7.16-8.22(6회)	(055)291-6405
신홍사(화성)	어린이·청소년·일반	수련법회	7.23-8.17(3회)	(031)357-2695	골굴사	청소년·일반	선무도 화랑수련회	7.1-8.31(수시)	(054)744-7689
월정사	일반	여름수련회	7.28-8.5(2회)	(033)332-6661	부처사	누구나	산사에불체럼	연 중	(054)633-3464
신홍사(속초)	학생·일반	산사의하루	연 중	(033)636-7044	청암사	어린이·일반	7월 철야기도	6.30-7.20(2회)	(054)437-0038
낙산사	가족	사찰문화체험	연 중	(033)672-2448	대원사	어린이	수련법회	7.21-23	(054)858-2630
구룡사	어린이·일반	여름수련회	7.25-8.7(3회)	(033)742-4800	직지사	어린이·중고생·일반	단기출가	7.2-8.9(7회)	(054)436-6174
법주사	초고생·일반	여름수련회	7.17-8.3(4회)	(043)843-3615	은혜사	초·중고생·일반	산사수련회	7.21-8.3(3회)	(054)335-3318
갈사	어린이·일반	여름수련회	7.25-8.4(2회)	(041)857-8981	관음사	어린이	여름불교캠프	7.25-27	(064)722-2829
마곡사	초중등생·일반·성당교사	선수련회, 자비명상	7.10-8.16(6회)	(041)841-6221	원명선원	일반	수련회	7.23-8.17(3회)	(064)755-3322
수덕사	일반	선수련회	7.5-8.17(5회)	(041)337-6565					

## 98년 멸빈자 처리 이견

98년 '해중행위조사특별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98년 종단사태 멸빈 징계자 5명의 징계는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계류 중인가?

조계종 회계원장 월서스님이 특별법에 의한 98년 멸빈 징계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로회의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원로회의와 법장스님, 회계원의 시각이 다르고, 또 종회 내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맞서고 있어, 종헌 개정 발발 후 특별법으로 멸빈자 사면 문제를 풀겠다는 법장스님의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 멸빈자 사면을 반대하는 괴문서가 나도는 등 종단 권력기구 뿐만 아니라 종도들 간에도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자칫 종단이 심각한 불협화음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회계원장 월서스님은 최근 발표한 '특별법에 의한 멸빈 징계자 구제 논의에 대한 회계원의 입장'에서 "당시 특별심사위원회는 법률적 검토와 해석을 바탕으로 멸빈 징계자들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들의 징계는 회계원의 최종 징계 결정에 따라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말은 이들 5명이 특별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지만 해당자의 심사 개시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 개시일로부터 심사 결정 때까지 징계효력이 유예된다'는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특별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기 전에 내려진 멸빈 징계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이다.

### 법장 스님·원로회의 특별법에 따라 해결

### 회계원장 월서 스님 종헌개정 해야 가능

월서스님은 또 "종헌 128조에는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서 멸빈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전제하고 "하위법인 특별법은 상위법인 종헌규정을 위반할 수가 없다"며 특별법에 의한 98년 멸빈 징계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장스님과 원로회의의 시각은 다르다. 그 시각의 핵심은 특별법에 계류 중인 이상 심사 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계원의 초심과 재심 판결 이후 제기될 지도 모르는 징계결정 절차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에,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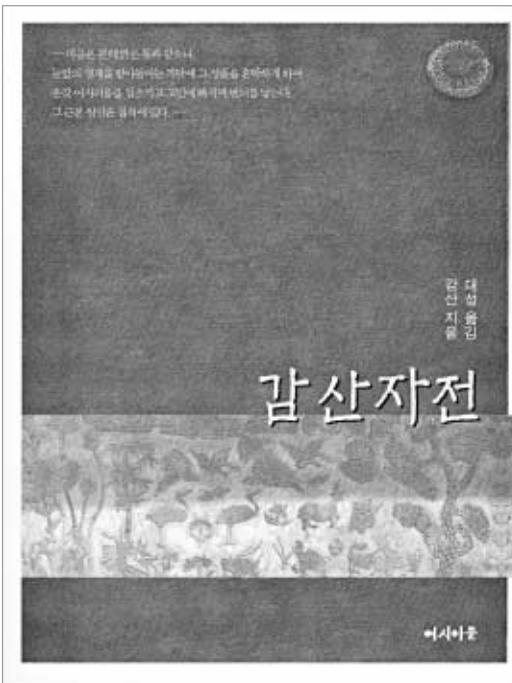
다시 말해, 특별법은 '징계절차'상의 문제를 확정짓기 위한 것이며, 종헌 128조는 사면의 '실시'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98년 징계자 문제는 '사면 사항'이 아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결정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에 계류 중이라는 것은 아직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논란 가운데 '특별법'의 적법성 여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종헌·종법 어느 조항에도 종단이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특별법을 제정·공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즉, 해중행위조사특별위원회 자체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총무원장 선거를 무리없이 치르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법장스님과 원로회의는 월서스님의 특별법에 의한 처리 반대 입장에 대해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면 문제가 종단의 최대 현안임을 감안할 때 정치적 타협이 없는 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 마땅히 가야 할

##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慈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수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년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짧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자신을 **감산** (感山, 1546-1623)스님은 윤서 주평, 자백 진가, 우의 지옥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蘆山 소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울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역시아만)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리선사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